



더연합타임즈

www.theuniontimes.co.kr

BNK 금융그룹

지역과 함께 세계로, 고객과 함께 미래로!

www.bnkg.com

제 20 호 | 2020년 5월 22일 금요일 | 전화 : 1899-2026

회장 : 송원기 / 발행·편집인 : 추교진 / 청소년담당 : 박행주 / 인쇄인 : 현재오

경기도 용인 역삼지구 조합원들의 갈등 진퇴양난

PM업체 참여 희망하는 넥스플랜(주)는 고소장 제출



용인 삼가동 전경



용인 역북동 전경

18년이 넘도록 조합원들의 분쟁과 계파갈등 각종 소송등으로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최종적인 PM업체 선정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진흙탕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기본시설이 열악하고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용인시가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작한 도시개발사업이

지역주택조합과 도시개발사업조합, 업무대행사, 도시개발사업 조합내에 토지매각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조합원들의 조직적인 방해 등의 이유로 불신과 내홍을 한두번 위기봉착을 경험한 것도 아닐 것인데 아직까지 PM사 선정을 미루고 있다보니 현재의 조합원들에게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질적으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017년에도 위와 같은 갈등과 비리혐의 등으로 감보율을 높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는지,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였는지 등의 내용까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은 바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검찰은 용인시청 도시개발과로 하여금 구역지정과 추진경위에 대한 택지개발계획 관련서류를 전달받아 시행사를 비롯하여 투자자와 조합

원등을 소환하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PM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넥스플랜(주)은 이00 대표이사의 명의로 김00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전임 조합장(정00)과 前 시행업자 (주)다우아이스콘스 前 대표이사(강00), 오륜산업개발(주) 대표이사(정00)를 상대로 하여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업무상 배임, 공동정범, 수뢰죄, 뇌물공여죄, 사후수뢰죄, 사기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일부는 구속 수감중인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넥스플랜(주)은 또 한편으로는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에게 “PM업체 선정 관련 체비지 매입조건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발송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어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

반면에 오륜산업개발(주) 정00 대표이사는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인사말에서 넥스플랜(주) 이00 대표이사를 비난하면서 이00 대표가 무슨 근거로 조합원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 바란다면, 그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으면 이00 대표이사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조합원들과 지역 주민들은 사업 지역에 따른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PM업체가 선정되기를 기대하면서 담담함을 호소하고 있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통장 잔고증명서 관련 분쟁서 1심 승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모 사기 혐의에 대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 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사업가 임모 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소송 1심 선고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최씨도 검찰 조사에서 임씨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씨 등은 이 사건에서 언급된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

이대범 기자 55db@naver.com

제2회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사랑과 행운의 새! 우포따오기 희망을 노래하다

2020. 5. 28.(목)
창녕 우포늪 일원

주최/주관

환경부 / 문화재청 / 경상남도 / 창녕군

*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참관을 제한합니다.



산업계에 위기 극복· 일자리 지키기 협력 당부

문 대통령은 “최근 세계적인 국경봉쇄와 이동 제한으로 항공·해운업이 직접 타격을 받았고 조선 수주도 급감했다”며 “북미·유럽 시장 수요 감소와 해외 생산 차질로 자동차 산업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패션기업의 80% 이상이 문을 닫으면서 섬유업체의 일감도 급감했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 조선업의 부진은 기계, 석유화학, 철강, 정유 등 후방산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수출시장도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기업의 생산 차질과 수주 감소로 중소 협력업체의 일감이 줄었고 2·3차 협력 업체로 갈수록 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전년 대비 수출·입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203억 달러, 수입은 2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0.3%(52억 달러), 수입은 16.9%(47억 달러)가 각각 감소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5차례의 비상경제회의 등을 통해 전례없는 대책으로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대한항공 등 9개 업종 대표들과 코로나 극복 간담회

“산업 생태계 반드시 지켜야…노사 협력 절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주요 업계들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항공·해운·기계·자동차·조선·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 9개 업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상황”이라며 “실물경제 침체와 고용 위기가 서비스업을 넘어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9개 업종 기업 대표들과 경제단체 대표들을 모시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민관이 함께 위기를 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그간의 정부 대책 등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전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며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응원하면서 정부도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 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 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정의연 압수수색에 스텝 꼬인 정부조사…기부금 반환도 ‘불투명’

정의연 검사 나선 행안부, 22일까지 출납부 제출 요구
기부금 반환조치에도 차질…“이제 수사 지켜봐야”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

기부금 유용 논란이 일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정의연에 오는 22일까지 기부금 출납부 등을 제출 요구해 문제가 있으면 기부금 반환 등 조치할 예정이었지만, 압수수색으로 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해 수사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선선했다.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

21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물품을 옮기고 있다. 검찰은 부실회계·안성 쉼터 고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정의기억연대를 압수수색했다.(사진=연합뉴스)

21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의연에 기부금 모집 및 접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때 모집자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일 모집자가 사용내역 기록을 갖추지 않거나 내역을 거짓으로 공개하는 등 문제가 있으면 등록을 말소해 모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인당 행안부 장관은 지난 19일 오

후 국회에 출석해 “기부금 10억원 이상 모집 등록 관청이 행안부가 어느 정도로 검사하는 게 합리적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정의연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부 차원의 조사를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일 압수수색을 받지 않고 정의연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독촉하거나 등록 말소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법적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확인돼도 현재 모집하고 있는 기부금만 반한 조치할 수 있고 과거 기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조치하지는 못한다”고 전했다. 현재 행안부는 정의연 측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다가 등록관청의 최대 벌칙 조항인 등록 말소도 압수수색으로 인해 적용 시점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졌다. 기부금품 모집 단체가 수사를 받을 경우 등록관청에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즉,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기소하는 시점인지 혹은 재판 결과까지 지켜볼지 등 어느 시점에 등록 말소를 해야 할지 부처 내부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것. 그 때까지 모집된 기부금은 반환 조치가 내려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정의연의 사무실과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수사를 맡은 서부지검 형사4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14일 이후 옛 새만안 20일 오후 5시쯤 압수수색에 나섰고 12시간 동안 증거 확보 작업을 진행했다.

오늘날 기자 sinmun2032@daum.net

미래로 뻗어가는 도시, 입니다.

- 세계 최대 인공서핑장을 중심으로 한 해양레저 클러스터
- 육·해·공 무인이동체를 연구하는 배곧경제자유구역
-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시흥형 스마트시티
- 글로벌 교육·의료 산학클러스터,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정경심 “표창장 파일, PC백업시 들어와”

정 교수, 집에서 사용 동양대PC서 표창장 파일 발견이유 해명
法 “업무용 파일 있었나” 질문에 “파일 워낙 많아서…보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집에서 사용했다가 반납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병치돼 있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 교수 측이 “업무용 PC 데이터를 백업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도 모르게)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21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석명을 요구한 정 교수가 쓰던 PC에서 표창장 파일이 나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7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지 않은 정 교수 컴퓨터에서 왜 표창장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이 없다”며 정 교수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했다.

검찰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돼 동양대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정 교수 컴퓨터에 대해 정 교수가 2016년 12월까지 해당 PC를 집에서 사용하다가 동양대에 가져다 놓은 다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2014년 업무용 PC 자료를 해당 PC에 백업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업무용 PC 사용자가 누구인지, 데이터를 해당 PC에 백업한 이유가 무엇인지 정 교수 측이 밝히라고 요구했다.

주심 판사인 권성수 부장판사는 변호인에 “PC에 누가 백업을 했는지, 아

니면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건지, 집에서 쓰려고 선별해서 (백업해) 가져갔다는 건지 설명이 전혀 없다”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그걸 저희가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썼다”며 “자꾸 검찰이 석명요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이라는 것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계

속 주고받고 석명하는 이런 절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기억이 안 난다거나 모른다고 하면 객관적 판단은 저희가 한다”면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가능성을 우리가 다 심리할 수 없어 피고인의 기억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알 수가 없다. 전혀 기억을 못 한다”고 했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해당 PC 파일들 전부 정 교수 개인적으로 사용했던 파일들만 있는 것 같다면 전체 파일 중 업무용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그 파일이 워낙 많아 파일을 다 보지는 못 했다”며 “봐야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낸 표창장 사진 원본파일을 언급하며 “사진파일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어디서 냈는지, 이 파일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다.

정 교수 측은 또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에서 정 교수가 언급한 ‘인주가 번지지 않은 수료증’을 현재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재판부 석명 요청에 대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99년 전자서명법제정과 함께 등장한 공인인증서의 시대는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다.

공인인증서 ‘갱신 없이’ 평생 쓴다

사용금지가 아닌 독점 폐지…기존 공인인증서 계속 사용 가능

매년 사용기간을 직접 연장해야 했던 공인인증서가 3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 번 발급하면 유효기간을 신경쓰지 않고 쭉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결제원은 21일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편의성을 해소한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준비 중”며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내놨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 구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별로 다른 인증서 발급 절차를 통일하면서 복잡한 발급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지는 향후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비밀번호는 지문·안면·흉채를 인식하거나 6자리 숫자인 핀(PIN) 번호나 패턴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는 특수문자를 포함해 10자리 이상을 쓰도록 해 비밀번호를 만들기도 까다로운 데다 기억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증서는 USB메모리 같은 이동식 디스크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온라인 기반 저장소)를 활용하기로 했다.

임경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여성 연쇄살인’ 최신종 포토라인은 안 선다, 왜?

이미 기소 된데다 현장검증도 없어 얼굴공개 기회 없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을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뒤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을 통해 피의자의 모습이 공개되지만, 최신종은 이미 첫 번째 범행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으면서 최신종의 모습은 법정에서만 볼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전북경찰청 형사과장은 비롯한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정신의학전문의 등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신종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과정에서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지만 피의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얼굴 노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이미 검찰

로 넘어가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법무부의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 소환 금지로 인해 사진이 아닌 최신종의 실제 모습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과정에서 포토라인 공개 여부도 논의했지만 피의자가 이미 구속 기소된 데다 현장 검증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얼굴 노출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산시의회
www.gbgsc.go.kr

우리 아이가 안전한 사회,
행복한 가족을 생각합니다.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재수생 시험 안봐 정확한 위치 가능 불가”

전국 단위 모의고사 올해 처음…인천 66개 고교는 온라인

고3 등교 둘째 날인 21일 오전 전국 고등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국 단위로 성적을 채점하는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일제히 시작됐다.

인천 고등학교 66개교 약 1만3000명은 온라인으로 치르고, 재수생 등 졸업생은 응시하지 않고 별도로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된다. 따라서 오는 12월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비해 본인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결국 다음달 18일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모평) 결과가 사실상 수시모집에 지원할 것인지, 정시모집에 지원할 것인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6월 모평에는 재수생도 응시한다.

입시전문가들은 학력평가 후에는 가채점을 하고 담임교사와 면담을 통해



2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부광고등학교에서 어제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한 고3 학생들이 전국연합학력 평가 시험을 보고 있다. 나머지 인천의 66개 학교는 온라인 시험을 본다.

전년도 교과 성적,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활동 기록을 분석하고 전형 요소에 따른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야 한다. 내신성적이 중요하다면 중간고사 준비 계획도 세워서 실행해야 한다. 희망 대학과 학과, 전형 유형을 결정하고 지원자라면 보충해야 할 학생부 기재 요소를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하남교산-송파 ‘전철 20분’ 거리로

3기신도시 하남교산·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

하남교산은 서울 기존 지하철역이나 신설역에 연결 고려

수도권 3기신도시 지구 가운데 하나인 하남교산 신도시가 서울 송파 도심까지 20분대, 강남 도심까지 30분대 거리로 가까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는 1·2기와 달리 입지 발표 때부터 교통대책을 알리면서 입주민들이 초기부터 교통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대책을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의해온 만큼, 이후 인허가도 신속히 추진할 예

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3만 2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하남교산지구는 서울 송파구 도심 등과의 거리가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기준에 도로교통에 의존해 잠실까지 50분, 강남역까지 65분가량 소요되던 거리를 이번 대책을 통해 철도교통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잠실까지 20분, 강남역까지 30분으로 이동시간을 30~35분가량 줄이겠다는 것이다.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 해당 전철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느 역으로 향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기존 서울 지하철 노선에 연결하

는 방안은 물론, 아예 서울 내 역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준 역으로는 서울 지하철 3호선의 종점역이자 5호선 환승도 가능한 오금역, 2·8호선을 지나는 잠실역, 9호선으로 서울 여의도까지 급행이 가능한 9호선으로 이어지는 중앙보훈역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른다.

국토부는 “앞서 발표한대로 기본적으로 3호선 연장을 중점에 두고 있는 건 맞지만 오금역이 워낙 외곽지역에 있다”며 “신도시 입주민들의 출근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강남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어 좀 더 서울 안쪽의 송파·강남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3의 답’으로 서울 내 신설역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인정하면서 “이번달 말 국토부와 경기도, 하남시가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에 종착지를 결정내릴 것”이라며 “빠르면 6~7월에 발표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하남교산과 과천지구는 청약 경쟁률이 1:1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자금 회수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밖에도 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부분화장, 동남로연결도로, 황산~초이간 도로 등 전체 철도·도로 등 20개 사업

에 2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과천지구에는 GTX-C 정부과천청사역 환승역사 투자 계획과 더불어 위례

과천 연장 구상 등의 구상이 더해진다.

국가철도망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위례과천선은 기존 북정역~경마공원역을 이를 것으로 구상된 노선을 과천 정부청사역으로까지 연장한다는 것이다. 위례과천선은 아직 그 자체가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지만, 전체 1조 6천억 원의 예산 가운데 이 같은 구상을 위한 4천억 원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안양~사당 BRT와 청계산 지하차도~염곡IC으로 구조 개선,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10개 사업에 7400억 원의 투자 계획이 수립돼 있다.

국토부는 “지하철의 경우 최소한 필요한 절대 공기가 있어 때문에 이를 최

대한 단축하는 퍼스트트랙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도시 주민들의 입주 시점보다 늦어지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초반에는 신도시만으로 수요 확보가 어렵더라도 이런 문제를 보완해줄 광역버스가 충분히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이미 반영해 놓았다”고 밝혔다.

나머지 3기신도시인 인천 계양, 부천 대장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다음 달 안에 LH로부터 구상을 제출받아 자체와 전문가와 협의를 거친 뒤 하반기 기에 확정 발표될 방침이다.

6만 6천 호의 가구가 대규모로 공급될 남양주 왕숙은 추가 대책을 포함한 전체적 종합대책이 수립되고 있는 중인데, 이 역시 마무리 단계로 조만간 대광위의 심의를 받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조희동 기자 121dong@naver.com



지난해 8월 미국 뉴욕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 행사 모습. ©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노트20’ 공개 행사 사상 첫 온라인으로 열수도

삼성전자가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 언팩(신제품 공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언팩 행사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의 폴더블폰(접을 수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2’도 공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새 태블릿이나 중저가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를 출시할 때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에서 공개한 적은 있어도 플래그십(전략) 제품을 온라인에서 공개한 적은 없다고 해외 IT 샘포바일은 전했다.

삼성전자는 2월과 8월 매년 두차례 신제품을 공개하는 언팩 행사를 개최해왔다.

언팩에는 매년 전 세계에서 온 관람

객들이 몰리는데 지난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린 언팩 행사에는 3000여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갤럭시S20을 보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행사를 개최할 경우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수많은 인원을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 온라인 행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언팩 행사 온라인 개최) 유력하지 않을까 한다. 결정은 안됐지만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다면) 향후 코로나가 지속될지 혹은 소강상태로 갈지 예단할 수 없다. 사업부에서도 상황을 지켜보다가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하반기 언팩 행사 개최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측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외신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월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사리 기자 ditfk115@naver.com

BC카드, ‘그린카드’로 친환경 자동차 충전 시 ‘반 값’ 할인…월 최대 2만원 할인 한도

BC카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지구의 날’ 50주년을 맞아 연말까지 BC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 충전요금을 결제하면 50%의 청구할인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차 보유 고객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등 충전사업자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에 미리 BC그린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수소차 충전소에서 BC그린카드로 결제하면 적용된다.

할인 한도는 전월 실적 구간에 따라 월 최대 2만원이다.

BC카드는 에코머니 포인트 5배 주가 적립 이벤트도 실시한다. 전기·수소차 충전 비용을 할인받은 고객이 그린카드 제휴유통사에서 친환경인증제품을 구매하면 기본 적립 외에 에코머니 포인트 5배를 추가 적립해준다.

수소차는 별도 과정 없이 전국 19개

이신호 기자 aaa2779@naver.com

KB금융그룹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뤄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엔,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해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미중 비밀 외교채널도 끊겨…양국 긴장 더욱 고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비공식 외교채널조차 단절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외교채널의 완전한 단절은 코로나19로 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계속 악화되는 이유 중 하나다. 공식 채널은 물론 비공식 외교채널도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왕후이야오 중국글로벌센터 소장은 “미중 정부 관계자, 기업 임원, 전직 관료와 학계 인사들 간 물밀 접촉은 코로나19로 인한 갈등과 여행 제한으로 완전히 중단됐다”며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소통 채널이 단절된 탓에 미국과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국은 공개 논평과 트위터 등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일 언론 논평을 통해 “중국의 통계를 믿지 못한다”, “중국에 크

게 실망했다” 등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중국 외교부 관리들도 트위터를 통해 연신 미국을 향해 비난

의 화살을 돌리며 반격하고 있다.

왕위 중국 국무원 자문위원은 “외교채널이 없어 양국 지도자가 서로 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대변인과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소통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미국에서 약 9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다. 이에 미국은 ‘중국 책임론’을 내세우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비공식 외교채널까지 단절된 상황에서 미중 1차 무역협정·화웨이 제재·중국 기업 나스닥 상장 제한 등의 문제를 두고 양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박병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도쿄 올림픽, 내년 개최 못하면 취소’ 인정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진 도쿄 올림픽이 내년에도 개최되지 않으면 취소될 상황이라고 인정했다.

20일(현지시간) 바흐 위원장은 BBC 스포츠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혔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올림픽 진행이 “여러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요코쿠라 요시타케 일본의 사회 회장은 도쿄 올림픽 개최 여부는 백신 개발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 동의하나고 묻자 바흐 위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조언에 의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을 세웠다. 모든 참가자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년, 2개월 뒤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가 내년 여름 개최가 “마지막 선택지”라고 자신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솔직히 말하자면 3000~5000



코로나 브라질서 ‘폭발’…확진자 하루 새 2만명 증가

브라질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사이에 2만명 넘게 늘어나 미국 다음으로 피해가 큰 러시아를 곧 넘어설 것 같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날 브라질 보건 당국은 하루 사이 확진자가 2만1472명, 사망자가 911명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그간 브라질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만5000명 선이거나 그 아래였다. 현재 브라질의 총 확진자는 29만3357명, 사망자는 1만8894명이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21일 현재 미국의 확진자는 160만명에 육박했다. 사망자는 9만4941명이다.

러시아는 확진자 30만8705명, 사

망자 2972명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며칠간 러시아에서 확진자는 하루 8000~9000명대로 증가하고 사망자는 94명~135명 사이에서 늘고 있다.

브라질과 러시아의 확진자수 차이는 1만5000명 전후에 불과해 며칠 사이 순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폐루와 칠레 등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남미의 이같은 급증세는 앞으로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북반구는 날이 따뜻해지는 반면 남반구의 남미 국가들은 바이러스들이 좋아하는 계절인 겨울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원 기자 kwp39@hanmail.net



한국은 1분인데, 일본은 언제?

느려터진 코로나 현금 지원에 속 터지는 일본인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국 민에 현금을 직접 주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지금 속도 등의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보·기술(IT)화가 진행된 한국의 행정 인프라가 서류 위주의 일본 접근 방식보다 신속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바이러스 구호에서 최신 기술에 능통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을 이겨(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짚중 조명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관련 예산안이 같은 날인 지난달 30일 각자의 국회를 일제히 통과했다. 한국에서는 가구당 40만~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전 국민에 1인당 10만 엔을 주는 예산안이 일제히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수주 뒤 나타난 결과에서 두 나라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19일 기준으로 전체 가구 가운데 80%가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고 행정안전부가 집계했다.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우편으로 신청서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실제로 주민들 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한 곳은 19%에 불과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제공 기업과 조율 작업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계획 실행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신속한 지원의 핵심 요인으로 중앙집중적

인 행정 능력과 신분확인시스템을 꼽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도 성공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또 50대 남성의 사례를 인용해, 한국에서는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1분도 안돼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용금액을 알려주면서 3개월 안에 이를 쓸 수 있도록 환기해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면 일본은 개인 식별에 필요한 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16%로 적어 행정 절차가 서류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카드를 받는 데에만 한 달 정도가 걸리고, PIN 번호를 여러 번 틀리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 잡겨버린다.

그리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관공서에 가야 한다. 온라인 신청도 쉽지 않아 적지 않은 국민이 신청서를 내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한다고 통신은 부연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도입을 한 달 남짓 늦추기로 했다. 당초 일본 정부는 이달 초부터 이 앱을 실용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내달 중순 도입을 목표로 방침을 수정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제공 기업과 조율 작업에서 시간이 소요되면서 계획 실행이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다함께!
다같이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같이 높이는
한전KPS의 기본 좋은
상생프로그램입니다.
패러데이 스쿨 편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 국내발전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설비 정비

www.kps.co.kr

Perfect & Pride
대한민국의 별을
키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KPS 패러데이 스쿨’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패러데이 스쿨 : 한전KPS의 사내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 상생 프로그램]

한전KPS주식회사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

단 한번의 승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주)세정파트너스의 운명을 걸었다

최근 불황기에 빠져 있는 한국 건설산업 업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을 말하라고 하면, 단연 (주)세정파트너스를 꼽고 있다.

(주)세정파트너스는 경기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최초 대행 사업인 (주)다우아이스콘과 조합사업을 위해 금융기관(KB증권, 현대차증권)으로부터 체비지 및 용인시 대행전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을 받은 (주)다우아이스콘은 그 대출금을 조합원들에게 가채금 등으로 지급했으나, (주)다우아이스콘 측이 대출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대출기관인 KB증권과 현대차증권 측이 그 권리를 담보하여 2019년도 12월에 공매를 진행할 당시 (주)세정파트너스가 이 권리로 획득하게 되면서 침체상태에 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무렵부터 (주)세정파트너스는 잔금가치를 예치한데 따른 사실에 근거하여, PM제안 공모의 시공사인 현대건설에서 책임 준공과 금융 주관사인 교보증권 등에서 조치하는 대출 확약서를 제출하

여 PM공모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었지만 순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발군의 저력은 (주)세정파트너스의 공신력과 출중한 재정확보 능력, 분양사업에 있어서의 '경륜'이라는 특출함에 힘입어 용인시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재도전 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용인시 지역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다. 건설시행사업 전반에 걸친 (주)세정파트너스에 대한 시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발전의 메인 시행사는 (주)세정파트너스가 되어야 한다는 공론들이 회자되고 있는 현실에 있다.

(주)세정파트너스의 경우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겨냥해 현재 주거개발 및 상권기반, 교육기반, 의료기반, 환경조성 등의 현대적 도시 면모를 갖추는데 확실한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과 본지 대표인의 대담 내용이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이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주)세정파트너스 건설산업의 메카로서 하나의 자존심이고, 용인 발전을 이룩하는 데 무언가를 기여해야 하겠다는 사회적 공헌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주)세정파트너스는 그동안 본 사업을 위해서 쓰여진 자금만 하여도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고, 또 앞으로도 완벽한 성공을 위해서는 상당한 자금이 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해 놓았다. 따라서 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작을 했던 (주)다우아이스콘으로부터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점검했던 (주)세정파트너스로서는 이 사업의 성공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 가짐은 기업인으로서의 '소명의식' 같은 것이다. 이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완공을 시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사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조합측에서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기존의 사업비를 투자해온 (주)세정파트너스가 혼연의 열정을 담아 조합원들 각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주)세정파트너스만의 자구적인 해결책만 갖고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 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사실 본보가 권영안 회장과 대담을 하기 전에, 용인 지역에 (주)세정파트너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문을 해보았다. 그랬더니, (주)세정파트너스에 대한 평가는 매우 호평일색이다. 특히, 공공조직 사회에서 더 높은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가고 있다. 그러기에 이들 도시도 혁신전략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부동산 도시개발사업 전문가인데 도시를 개발사업과 연관시킨것에 다소 생소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도시계획이 규제를 통해 땅값을 낮춘다거나 사업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커다란 오해이다. 오히려 도시계획의 목표는 지역 사회 전체의 토지 부가가치를 높이고,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관건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시계획을 통해 차도의 폭을 줄이고 보행로를 넓히는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하겠지만, 보행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므로 해서 지역 상인들의 사업에는 커다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계획과 사업은 상호 보완적이라 말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효율성을 다했다고 보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준대로 존치해야 된다고 보는지?

그린벨트 문제는 그동안 존치와 폐지의 양비론적 논리가 지배하여 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린벨트 실태와 공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그린벨트는 상당부분 '비닐벨트'라 해도 과언이 아님지만, 그 실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그린벨트 바깥에 세워졌는데, 그리고서는 판교신도시,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보금자리주택 등이 그린벨트를 야금야금

금 잡식했다. 이제 '그린'의 실태가 어떻고, '벨트'는 계속 필요한지 등에 대해 충분하게 평가토론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부동산 도시개발 사업 전문가로서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생각할 때 가장 큰 위협요인 중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수요 및 구매력 감소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먼저 국경을 초월한 개방형 국토전략을 펼쳐야 한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가 명동 바닥을 훑고 지나가면 상권이 되살아 나듯이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서울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도시들을 세계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

축소도시 또는 과소도시가 우려되는 지방 중소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적어 방문객들에게 변집하지 않고, 쾌적한 험경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주)세정파트너스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로 알고 있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성공을 시키겠다는 것인지?

저희 (주)세정파트너스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자로 본격 착수를 결정되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따라서 용인시청 앞 노른자 땅 위에 위치한 역삼지구가 임지하고 있는 주변 조건, 즉 시청, 동부경찰서, 세무서 등이 몰려있는 용인행정타운과 밀접한 배후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용인시청이나 용인대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용인 역삼지구는 지난 2019년 8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으로서, 69만평방미터 전체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도시개발사업의 시원을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추진과정에 용인시 발전 및 경제도시로서의 용인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하겠다.

그동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오랫동안 난항을 겪어왔다. 이러한 단점들이 사업성공에 미이너스가 되지는 않겠는가?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때문에 지지부진했던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새롭게 정리해서 저희 (주)세정파트너스가 마무리를 짓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저의 주장은 오기나 만용이 아니다.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저희 (주)세정파트너스는 이미 체비지의 가압류, 가치분 등의 해소를 위해 가압류 채권자인 KB증권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대출 채권을 인수했고, 이 같은 조치로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 조합측에 정식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성공되면 어떤 형태의 신도시로 탈바꿈이 되는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상업, 업무용지 12만 6천평방미터, 복합용지 5만 7천평방미터, 주상복합용지 19만 평방미터, 공공시설용지 31만평방미터가 개발될 예정이고, 주상복합용지 5,256세대의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1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주)세정파트너스는 용인시 관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그동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 투자한 자본과 열정만으로도 그만한 호평을 받을 만 하다.

그렇다면 (주)세정파트너스는 어떻게 철옹성 같은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을까? 그 배경을 이해하자면 우선은 (주)세정파트너스의 역사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동안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은 냉혹하기만한 시행산업 업계에서 패배라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실패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용서를 하지 않는다. 실제로 시행을 위해서 자금을 만들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입주민, 즉 조합원들에게는 가능한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들을 구상하고 그를 또 실천해냈다.

이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부분에서도 조합원들의 부담을 최소화 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사실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구구한 억측들이 많았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신용이 급전직자로 추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았다. 이같은 불신들을 일거에 불식시키고, 해소한 당시자가 바로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이다. 특히 (주)세정파트너스의 권영안 회장은 현재 시행업체의 새로운 전설이 되고 있다.

다른 지역도 아닌 용인지역에서 쎈세이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번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야망을 품은 권영안 회장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올인하고 있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권영안 회장은 건설산업의 힘자라고 말하는 시행사업을 경영하면서 (주)세정파트너스만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았다. 새롭게 입주하는 조합원들의 사정을 살펴보고, 시공사, 금융기관 등과의 협력관계 유지로 권영안 회장의 경영인으로서의 신념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 것이다.

이제 치열한 한판의 경쟁을 남겨놓고 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역점에 더하여 현대와의 협력발전 방안모색, 채권 금융기관과의 공신력 담보 등이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성공을 재촉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담/정리 : 송원기 기자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조감도. (사진 출처 : (주)세정파트너스)

‘신천지 명단 누락’ 의혹 밝힌다

검찰, 신천지 압수수색 검사 등 100여 명 전국 신천지 시설 대상

코로나19를 확산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첫 강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동원해 전국의 신천지 시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곳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 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89) 총회장을 포함해 신천지 각 지파 관계자들의 자택과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이 총회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



지난 12일 청와대 분수앞에서 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피해자 피해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그동안 조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
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접수

장소 및 신도 명단과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 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여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돋는 차원에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며 강제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장 접수 석 달여 만에 이뤄진 검찰의 첫 강제수사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피연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아직 논의된 바 없다”며 “압수수색 대상 및 압수물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 운전자 영장 신청

포천서 발생…40대, 39km 어린이 치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위반 1호 사례가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상에서 11세 어린이가 A(46·여)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km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 지난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 송치 기준 2호 사례다.

김정옥 기자 kiosp200@hanmail.net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 역시 부주의에 의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북부에서는 현재까지 포천 사례를 포함해 4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발생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발생시 과속 여부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과속은 사실상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을 받게 되니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옥 기자 kiosp200@hanmail.net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경찰 출석

취재 따돌리려 하차지점 바꿔…警, 사퇴시기 조율 의혹 등 조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서 오전 시장의 시장직 사퇴 경위 및 시기와 사퇴 과정에서의 외부인사 개입 여부, 또 다른 성추행 피해자의 채용비리 의혹 등도 밝혀질지 주목되고 있다.

오전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변호인과 함께 차량으로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 조사실(진술녹화실)로 옮겨간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려난 뒤 사퇴 시기 조율 등 여리 의혹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경남 거제와 전남 순천 등에서 침거한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사왔다.

경찰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자 한때 공개 소환 여부를 검토했지만 오전 시장 측이 경찰 조사 때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취재진 등의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비공개 소환으로

결정됐다. 오전 시장은 이날도 시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하차 지점을 바꾸고, 지하통로로 은밀히 출두했다.

오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부하직원을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전 시장 측은 피해자 측과 4월 이내에 사퇴한다는 공증을 한 뒤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다.

오전 시장 사퇴 4일 만에 30명의 대규모 수사진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그동안 정무라인 최측근과 비서실을 포함한 시청 직원, 시민단체 고발인들을 조사해 왔다.

오전 시장과 측근 인사들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해 통화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마쳤고, 피해자와 작성한 공증문서까지 확보해 일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최근 경찰과의 피해 진술 조사에서 오전 시장의 엄벌을 촉구한 상태다. 경찰은 오전 시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신청이나 불구속 기소 등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공무원들은 오전 시장이 이끈 민선 7기 2년간 시정 운영에 대해 혹평을 내놨다. 또 부산 공무원노조는 22일 오전 시청 로비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시장 사퇴 이후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복귀한 신진구 대외협력보좌관에 대한 출근 저지 투쟁에 이어 피켓을 들고 사퇴촉구 집회를 벌였다.

부산 공무원노조가 최근 부산시 공무원 1428명을 상대로 한 ‘민선 7기 2년 시정 평가’ 설문조사에서 ‘민선 7기 2년간 시정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5.8%가 부정적이었고 긍정 평가는 10.4%에 그쳤다. ‘부산시 조직 운영 중 잘된 부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잘된 게 없다’는 답변이 61.5%로 압도적이었다.

배영달 기자 bod600@naver.com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에 참가한 ‘범행자금 제공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달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사방’에 참여한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의 변호인 일정 때문에 다음주로 연기했다”며 “다른 피의자도 공범 또는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주에 함께 심사를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5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주빈(25·남) 등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박사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박사방’가입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보고 임씨·장씨에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김다님 기자 ekska777@naver.com



“만덕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제주돼지는 맛있다”

돼지 앞의 제주라는 단어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돼지가 다 같은 제주돼지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제주만으로는 부족한 무언가를 (주)만덕축산유통이 채웠습니다.

제주의 자연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마법을 품은 돼지고기가
이제 우리를 새로운 맛의 세계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만덕포크 만덕고기

(주)만덕유통
064-792-28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 4길 26

탐방산행

수리산(修理山)



시민 가까이 있어 더 친근한 안식처

수리산(修理山)의 지명유래에 관해서는 세 가지 설이 있다. 산의 바위가 마치 독수리와 비슷하여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신라 진흥왕 때 창건한 수리사(修理寺)로 인해 수리산이라 했다는 설, 조선시대 때 어느 왕손이 수도하여 수리산(修李山)이라고 했다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일명 '견불산'(見佛山)이라고도 한다.

수리산은 광주산맥을 구성하는 산지 중의 하나로 군포시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태을봉(489m)을 중심으로 남서쪽에 슬기봉(451.5m), 북서쪽으로 관모봉(426m), 남서쪽으로 수암봉(395m) 등과 같은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봉우리 및 절벽은 대체로 규암이고 계곡지대에는 풍화에 약한 흑운모호상 편마암이나 안구상 편마암이 많으며 부분적으로 백운모 및 흑운모 편암이 혼재되어 있다.

숲의 상층부는 낙엽활엽수로서 굴참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있고, 상록침엽수로는 소나무가 일부 지역에 소규모로 분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리산에서 나타나는 포유류는 종류와 개체수가 비교적 적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두더지, 멧토끼, 청설모, 들개, 너구리, 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

수리산은 안양시, 군포시, 그리고 안산시 경계에 있는



변산바람꽃



수리산 할미꽃

산으로 능선을 따라 여러 산행 코스를 이루고 있으며, 200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세 개의 암봉은 수도권 남부의 조망대가 되어 안양시, 군포시, 안산시와 수원시가 보이고 시계 거리가 아주 좋을 때는 40km 이상 떨어진 인천 앞바다까지 훤히 다 보인다.

봄이 오기 전에 노란 복수초가 차기운 눈을 뚫고 피어나고 겨울이 채 가시지 않은 봄이라고 부르기에 좀 이른 봄날 바람을 이기며 변산 바람꽃이 청조한 얼굴을 내민다. 또한 3월이 되어 따뜻해지면 청노루귀가 따스한 햇살을 받고 하늘거리며 등산객들에게 기쁨을 준다.

수리산은 또 진달래와 철쭉이 많이 피는 이른 봄 꽃구경으로 시작해서 겨울 하얀눈이 산을 덮어도 능선의 곡선이 아름다워 사시사철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수리산에는 태을봉과 슬기봉, 수암봉의 삼봉이 우뚝 솟아 등산객에게 길을 잊지 않도록 지표가 되어 주고 있는데 태을봉과 슬기봉은 군포시에 수암봉은 안산시에 위치해 있으며, 수암봉에 올라서면 안산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수리산을 관통하는 서울외곽도로가 등산객들의 눈과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산의 형상이 독수리가 치솟는 모습'이라 하여 수리산

으로 불리며 신라 진흥왕 때 창건된 수리사가 있다.

안양시 만안구청 뒤편 기슭엔 삼림욕 코스도 있어 인근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다. 연간 140만 명이상 이용 한다.

북쪽 골짜기에는 천주교의 성지인 수리산 성지가 있다. 최경환 성인을 기념하는 수리산 성지에는 신도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해놓은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은 비탈길 순례 코스와 매우 작은 성당이 있고, 주말에는 순례자를 위해 미사를 한다.

특이한 것은 집전하는 신부가 신도 쪽이 아닌 벽에 붙여 놓은 제대를 보고 하는 구식 미사 전례를 집전한다. 지금은 쓰지 않는 천주님이라는 용어로 집전을 하는데, 과거의 전통을 되새기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수도권 전철 1호선과 4호선을 이용해 갈 수 있다. 물론 수리산역은 이 산의 이름을 딴 것이다.

접근성이 좋은 곳은 1호선 안양역 하차 마을버스 환승 병목안삼거리 하차 도보, 명학역 하차 만안구청 방향 도보 이용, 4호선 수리산역 하차 도보, 대야미역 하차해 도보를 이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김순철 기자 ash1931@naver.com



신/간/안/내

'몸'과 '마음'을 깨우는 자연치유력

기치유는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바꿀 것이다.

기치유는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기치유는 육체뿐 아니라 정신에도 깊이 관여하여 우리 몸을 아롭게 해준다.

기치유는 종교와는 무관하며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나이,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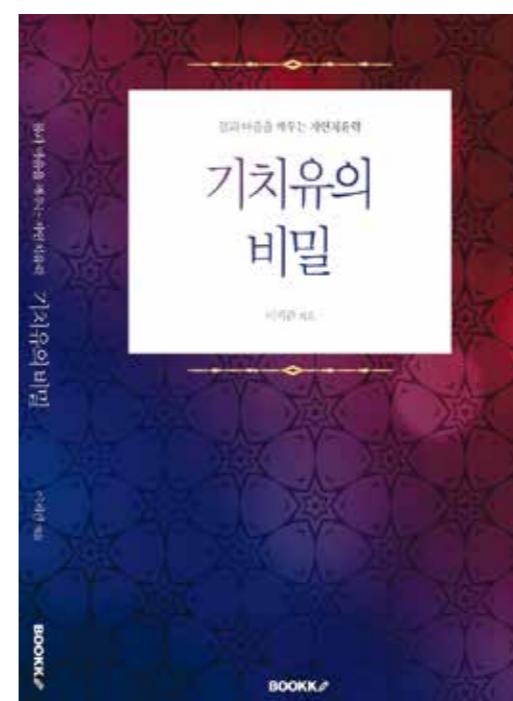
인종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작용하며 심지어 동·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듯이 일정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처럼 한번 배우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기치유를 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기치유가 특별한 능력자나 오랜 수련을 한 사람만 가능할거라는 착각을 많이 했던 것 같다. 앞에서 말했듯 다른 공부와 별반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서구에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기치유가 선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암 병동에서 일정기간의 기치유를 공부한 간호사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기치유에 필요한 부분들을 기본에 충실하면서 많은 것들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기치유를 모르는 분들이더라도 이 책을 보면서 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책에서처럼 따라 하기만 하면 바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돋고자 한다.



이지관 지음 / 부크크(Bookk) 펴냄 / 값 14,000원

이지관치유연구소

건강컨설팅 / 원데이교육 / 기업체출강
통증관리 / 수기요법교육

| 문의 | 010-2304-1075

<https://momplus777.modoo.at/>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도시 성남
성남시의회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진정 · 민원 031)729-2532~3
LIVE 인터넷방송 보기 www.sncouncil.go.kr
성남시의회 의정활동은 인터넷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칼럼



다시금 생각하는 '나의 언론생활 30년'을 말하다

송 원 기
(본지 회장)

나의 기자로서의 궤적, 어언 30년여가 되어옵니다. 언론인으로서 역사와 함께 경영인으로 지탱하여 왔던 지난 세월 또한 짧지 않은 않습니다.

비록 화려하거나 성대하지는 않더라도 '연탄신문'이라고 일컬었던 시절에 언론 통폐합을 지켜보았고, 군사정권의 종식을 바라보았으며, 민주화를 열망하였던 3金의 시대 주역들의 종착역도 아직은 나의 머릿속에 남아 있기에 지금 현재도 일간지 〈한민일보〉와 월간지 〈서울포커스〉를 지속적으로 발행을 해오면서, 집대성으로서의 역사를 말할 수 있었고, 그러한 발행의 역사들이 저에게는 마치 진정한 언론인으로서의 문을 여는 열쇠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간의 발행되어진 면면의 글들을 보면서 주옥같은 것이라고 자화자찬 할수는 있지만 그 당시의 주제나 의도는 그 시대성의 당위를 말했던 시의적절함과 계몽으로서의 수준높은 글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발행되어진 수천여년 호의 신문과 잡지를 보면서 저의 손때가 묻지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값진 것이었고,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한 시대의 난맥상을 째뚫어 보고 국가의 미래, 사회의 비전을 투시해 볼 수 있는 혜안력들이 절나라하게 담겨 있었음을 새삼 목도하면서 '아! 이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절절함을 마음속에 삭여놓고는 아직은 언론을 다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부족함을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세상에 글쟁이로 선을 보게되던 수십 년 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올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의 교양적 가치가 성숙되어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각성 자체만으로도 성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는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언론의 정도를 알았다는 것이고, 언론 본연의 소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감히 '용기'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떠한 난관도 헤쳐갈 수 있는 '극기'라는 것도 마음속에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 나의 여기까지 오는 길에는 나 혼자만의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사랑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동료, 후배

들의 고단함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숨겨진 진실은 나와 함께 평생을 동반할 사랑하는 아내의 응원과 자식들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책'에는 팔자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팔자가 있는 것이라면 운명 같은 것도 있게 마련이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영속되어졌다는 것은 제가 주도하는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의 팔자는 꽤나 괜찮은 운명을 지니고 출범하지 않았나 하는 통속적인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 독자. 제위 여러분!

그동안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의 창간 당시를 가름하여 보면 수많은 글들이 수록되어 왔지만 글마다의 시대가 바뀌었고, 또한 글의 필자들도 이미 운명을 달리 한 선배들이 있는가 하면, 수습기자로 입사했지만 지금은 어엿한 중견 언론인으로 자리 잡은 후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를 경유해간 언론인들의 족적은 파란만장함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달아 보건데, 왜 구태여 언론이어야 했는지? 언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언론인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수는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과장되지 않은 절제된 글로 담백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솔직한 언론으로 성장,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민일보〉와 〈서울포커스〉 필자들이 그동안 써온 글들은 하나님의 '역사서'라고 저는 말합니다. 그래서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인이 전체를 조망하고 갈 때 '일회일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한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 글을 쓰려할 때 주저하기도 했으며, 언론이 탄압되던 그 세월을 생각할 때는 슬픔으로 기억되어진 것들을 지워버리고만 싶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당하고, 난후에 밀려오는 고독감은 절망을 불러오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절망과 희망, 희망과 절망을 수십번, 아니 수백번을 갈등하고 갈무리하면서 지내온 나의 언론생활 30여년을 뒤돌아 볼 때, 그래도 우리의 글을 읽고 격려해주는 '독자'들이 있어서 행복했다는 지극한 사실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자관 교수의 기(氣) 이야기

"기치유가 도대체 뭐야!"

나에게 도움이 될까?



조금도 쉬지 않고 호흡하는 공기, 등장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연예인들의 인기, 어른들이 말하는 "수저 놓으면 죽어"의 곡기라고 하는 곡식의 기운을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리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로부터 일상의 생활 속에서 기(氣)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써 옴으로서 '기(氣)'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고 있다. '기'는 힘이고 에너지이며 파장이다. 실제 생활 속에 쓰이는 단어를 예로 들어 기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 외에도 '기를 깍는다', '기가 센 사람이다', '기가 막히다', '기절했다', '기분이 나쁘다'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언어생활 이외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거나 보고 느낄 수 있는 기를 보면 자석 등의 N극과 S극이 상호 작용하는 힘이나 해, 달, 지구 및 우주계(은하계)의 인력이나 지구의 중력 등을 기(에너지)의 현상이라 하겠다.

생물은 물론 무생물에도 분자, 원자, 중성자 등의 움직임이 있다. 그 움직임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에너지와 파장이 기(氣)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역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오감(五感) 이상의 감각, 쉽게 말하자면 말 그대로 기를 느끼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

자연에 펴져 있는 기나 타인의 기(氣) 등 모든 기(氣)들에 정신이 감응하는 능력이며 나아가서는 기감을 바탕으로 다른 초능력도 개발할 수 있다.

보통 명상이나 기 수련을 통하여 기감을 터득하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다. 간혹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도 자각하게 되기도 한다. 아무튼 이 기감은 누구나 조금만 집중하면 느낄 수 있는 감각이지만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다른 특이능력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땅속을 보지 않고도 수백미터 지나가는 것을 감지하고 아픈 사람에 몸의 이상부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 등 이외에도 수없이 많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원에 가서 오직 의사에 의해서 약이나 수술 등에 의해서 치료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며 본인 내부에 자연치유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사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자신 내부의 자연치유력을 키우고 활용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갔으면 한다.



이 지 관

- 이자관치유연구소 소장

- 〈기치유의 비밀〉 저자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서다 보다 걷다 꼭 기억하세요!

-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넙니다



www.adparkcom.kr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으세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 시대!

카다록도, 전단지도, 신문광고, 잡지광고, 지하철광고...
모든 광고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어집니다.

왜? 홈페이지가 필요할까요?

요즘 누가 광고만 보고 믿나?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환경 속에서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폰'을 꺼내서 **인터넷**에 먼저 검색해 보는 세상, 그런데 아무 정보도 없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

이 회사는 인터넷도 안하는,
시대에 뒤쳐진 회사이구나...

둘째,

이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됐나?
그렇다면 체계도 영성한 거 아냐?!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디자인+인쇄+홈피+광고+CI., BI. 원스톱 서비스

www.adparkcom.kr

PACKAGE 기업 및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시스템

인쇄 + 디자인

홈피+기획, 디자인

광고 +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A PACKAGE Basic ————— ₩ 5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3종 + 템플릿 홈페이지 + 기본간판

B PACKAGE Economic ————— ₩ 1,0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5종 + 일반형 홈페이지 + 사인시스템

C PACKAGE Premier ————— ₩ 2,000,000

CI. 또는 BI. 기본, 응용형 + 홍보물 7종 + 기업형 홈페이지 + 사인시스템



애드파크
adpark communications

성공 비즈니스,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
기업 이미지 메이크업!

CONTACT US

tgpark2043@naver.com

031-904-8805

010-7591-7149